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정서표현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구조관계 분석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현 지 운

2014년 8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정서표현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구조관계 분석

지도교수 김 민 호

현 지 윤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현지윤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송 재 홍



위

원

김 명 석



위

원

김 민 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4년 8월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with College Students

Hyun, Ji You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 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ug. 2014

국 문 초 록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정서표현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의 구조관계 분석

현 지 윤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김민호

이 연구의 연구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이론적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표현을 통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경로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은 대학생이었으며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228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er, Tupling & Brown(1979)가 개발한 PBI(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사용하였으며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Kring, Smith & Neal(1994)가 개발한 EES(Emotional Expressivity Scale)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나리, 이동귀(2010)가 타당화한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1988)의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표현을 매개로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적인 경로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 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과 동시에 정서표현이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요인임을 밝혔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이 과도한 보호가 아닌 충분한 돌봄으로 지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부모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대인관계 유능성, 매개효과, 부모양육태도, 정서표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부모양육태도	6
1) 부모양육태도 개념	6
2)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8
2. 정서표현	9
1) 정서표현의 개념	9
2) 정서표현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11
3. 대인관계 유능성	11
1) 대인관계 유능성의 개념	11
2)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13
4. 부모양육태도, 정서표현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15
III.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6
1. 연구모형	16
2. 연구가설	17

IV. 연구방법	18
1. 연구 대상 및 절차	18
2. 측정도구	20
1) 부모양육태도 척도	20
2) 정서표현 척도	21
3)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21
3. 자료 분석	23
V. 연구결과	24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24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24
2)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28
2. 부모양육태도, 정서표현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구조관계	31
1) 측정모형 검증	31
2) 연구모형 적합도 분석	32
3) 연구모형의 구조경로의 유효성 검증	33
4)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	34
VI. 논의 및 제언	36
1. 논의	36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40
참고문헌	44
Abstract	51
부록	53

표 목 차

<표 IV-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19
<표 IV-2>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요인	20
<표 IV-3> 정서표현 척도의 하위요인	21
<표 IV-4>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하위요인	22
<표 V-1>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25
<표 V-2>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측정 변인들의 일원분산분석 효과	27
<표 V-3> 측정변인간의 상관계수	30
<표 V-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32
<표 V-5>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32
<표 V-6>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33
<표 V-7>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34
<표 V-8> 대인관계 유능성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총효과 분해	35

그 립 목 차

[그림 III-1] 연구모형	17
[그림 IV-1] 측정모형 검증결과	31
[그림 IV-2]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3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평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 성숙한 인격을 완성해간다. Sullivan(1953)은 한 개인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근원은 대인관계이며, 이러한 대인관계를 통해 개인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얻는다고 하였다. 대인관계를 통해 받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는 자원이 되며, 건강한 대인관계는 행복한 삶과 직결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은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구재선, 김의철, 2006).

대학생의 시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서 분리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기동안 발달과업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된다(김종서, 남정걸, 정지웅, 이종환, 1983).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학급단위의 비교적 단순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반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서 인간관계가 확장됨에 따라 의미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김성령, 2002). 그러나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은 까닭에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기술을 익히지 못한데다가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를 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박한샘, 2004) 대학생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즉, 대인관계의 범위는 넓어지는데 스스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불안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권석만, 1995). 김성희와 박경희(2008), 이인숙(2004), 장수정(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Robert, Kassel & Gotlib(1995)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대학생들은 동료 학생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행동을 쉽게 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심각한 우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학생 시기에 대인관계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적절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대인관계 유능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학생들은 성숙한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Elias, 1989; 주석진, 2012 재인용). 따라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인 대인관계 유능성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Spitzberg & Cupach, 1989)으로,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한 Lapsley와 Edgerton(2002)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개인 내적 요인과 부모자녀 관계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는 개인 내적 요인에는 성격·심리적 특질, 정서, 자신에 대한 신념, 인지·행동적 반응 등이 포함된다.

먼저, 개인 내적인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정서 표현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심혜숙과 왕정희(2001)의 연구에서는 정서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대인간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였고 개인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개인의 인상적 적응과 사회적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정서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일수록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권진희, 2006). 따라서 사람들은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개념을 확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할 수 있다(정은임, 2004).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증진을 위하여 개인 내적 요인인 정서표현 측면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다음으로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를 살펴보면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로 최초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원만하고 안정적인 인간으로 성장 발달한다. 또한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장차 사회생활에 필요한 틀과 적응방법을 배우게 된다. 다시 말해 대인관계의 시초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 태어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최초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인간의 대인관계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는 긍정적인 영향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와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협동적, 우호적이며 정직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신중한 성격을 나타내지만, 거부를 경험하고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된 행동을 나타내고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반면 부모가 거부적이고 무관심하다고 지각할수록 불안 수준이 높고 부정적인 자아상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한다(Collins & Read, 1990).

그러나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부모자녀관계요인은 대부분이 부모와의 애착(이복영, 2008; 정민현, 2008; 황경옥, 2001; 황수민, 방희정, 신지은, 2010)이 주를 이루고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성인기가 되면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미국 대학생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이 되어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고려할 때,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필요하다.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연구들에서 대학생의 정서표현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개인 내적 영향과 부모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부모들이 자녀를 보다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사회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아가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유의한 정보와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2. 연구문제

지금까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연구자는 부모양육태도-정서표현-대인관계 유능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표현을 매개로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적 경로구조를 설정하고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표현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정서표현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가?

3. 용어의 정의

1)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나 또는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자녀의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다. 또한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실제 양육태도 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대학생간의 심리적인 관계로 대학생이 실제로 느끼는 부모의 양육을 나타내며 Parker, Tupling & Brown(1979)이 개발한 PBI(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사용해 돌봄, 과보호의 분류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2) 정서표현

정서표현이란 정서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표현의 내용도 정적요소나 부적요소에 상관없이 없으며 표현양식 또한 얼굴표정, 음성표현, 제스처에 의한 표현 등 다양할 수 있다고 본다. Kring, Smith & Neal(1994)가 개발한 EES(Emotional Expressivity Scale)를 사용하여 본인이 지각하는 정서표현 지각 정도와 타인에 대한 평가지각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3)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이란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1988)이 개발한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한나리, 이동귀(2010)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관계형성 및 개시능력, 권리나 불쾌함을 주장하는 능력, 개인적인 정보를 개방하는 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능력,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

1) 부모양육태도의 개념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분류는 Symonds(1949)가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발표한 이후, 여러 학자들이 더욱 체계화하고자 시도하였다. Schaefer(1959)는 신생아기부터 청년기 초기까지 이르는 동안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심리적 자율-심리적 통제의 양극화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이는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 자녀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자녀의 인지·정서·행동적인 특성은 부모나 양육자가 어떻게 자녀를 돌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후 Becker는 수년간의 연구를 요인 분석한 결과 Schaefer(1959)의 두차원에 부모와 자녀의 분리-지나친 관여의 차원을 추가하여 애정-적대, 자율-통제, 냉담한 분리-불안한 정서적 관여라는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애정은 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적대는 자녀에 대한 무시, 별, 신경 과민적인 반응, 자녀를 큰 부담으로 여기는 것 등을 말한다. 둘째 자율은 자녀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말하며, 통제는 불안, 강제성, 지나친 보호, 성취에 대한 요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Roe와 Siegelman(1963)도 아동기에 부모의 행동을 다루는 항목들에서 정서적 유대에 관한 세 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첫째는 냉정·거부-애정·온정의 차원이고 둘째는 원인(causal)-요구(demanding)의 차원이다. 세 번째 요인은 단일차원으로, 반드시 애정을 수반하지는 않으면서도 단지 아이의 보호에 대한 관심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Schaefer(1959)도 초기 애정-적대, 자율-통제 구분에 더해 부모가 규칙을 만들고 한계를 설정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차원으로 강경한 통제-느슨한 통제로 명명한 차원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양육태도에 대해 두세 가지 차원을 구분하고 있다.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많은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관하여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는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첫 번째 추출된 것은 양극 차원으로 한쪽은 애정, 감정적 온정, 공감과 친밀감에 의해 정의되고 다른 한 쪽은 감정적 냉정, 무관심 또는 냉담, 무시에 해당된다. 두 번째 요인 역시 양극 차원으로 한쪽은 통제, 과보호, 간섭, 과도한 접촉, 어린아이취급과 독립적인 행동의 저지에 의해 정의되고 다른 한쪽은 독립성과 자율성의 허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과보호는 주로 과도한 접촉과 아이취급, 독립적 행동의 저지에 의해 형성되고 과보호의 존재 혹은 부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기제도 서로 다르다. 돌봄은 초기 사회화의 이론 형성에 중심이 되며, 애착이 개념에서 표현되었다. Bowlby(1984)는 안정적인 애착을 바탕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의 반응이 돌봄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반면, 과보호는 과도한 돌봄과 동의어가 아니라, 통제하거나 제약하고 어린아이 취급을 함으로써 의존심을 부추겨 아동의 필수적인 사회화를 제한하거나 느리게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Parker, Barret, & Hickie, 1992). 돌봄은 주요 양육차원으로서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고 요인분석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지지되어 왔다. 이에 비해 과보호 차원의 중요성은 요인분석 연구로부터 얻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보호 구성개념과 다른 유사한 양육의 구성개념(예.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간섭) 사이에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쉽게 이해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심리적 통제가 자녀로 하여금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킴으로써 교묘하게 다루려는 것과 달리, 과보호는 자녀의 안녕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바탕으로 부모의 불안한 정서적 요소가 개입된 양육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Parker, Tupling & Brown(1979)은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돌봄과

과보호 두 차원을 경험적으로 정의하고, 간단하고 신뢰로우며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개발하였다. PBI를 통해 얻은 돌봄 차원의 높은 점수는 정서적 따뜻함과 공감을 반영하고 낮은 점수는 정서적 냉정함과 무관심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반면, 과보호 차원의 낮은 점수는 독립심과 자율성을 키워주는 양육태도를 반영하고 높은 점수는 과도한 통제와 의존심을 키우는 양육태도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2)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낮은 부모의 돌봄이나 과보호적 양육태도 등은 부정적인 부모-자녀 결속을 가져오고 이것은 성인기에 관계를 발달시키는 능력에 손상을 주게 된다. 낮은 자존감과 자아존중감은 생활상의 위기에 대처하는 중심적인 기제를 약화시키며, 불충분한 부모의 돌봄은 초기의 취약함을 형성하게 하고 과보호적인 양육은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소의 손상을 초래하지만, 부모의 손상과 같은 구조적인 기능보다는 명백하게 강한 영향을 준다(Parker, Barrett, Hickie, 1992).

Sroufe(1988)는 아동기 양육경험의 이후에 대한 영향은 보다 복잡한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데, 개인이 성인기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나 부모 역할을 하게 될 때 분명해 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해 취약해 지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Parker, Barrett, Hickie(1992)은 부모의 어떠한 특성이 사회적 관계망(networks)과 친밀한 관계 등과 같은 후기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지 조사하였다. 아동기에 받은 핵심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의 측면인 돌봄과 과보호를 PBI를 통하여 측정하고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하였다. 문헌조사에서 부모로부터 낮은 돌봄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경우와 사회적 결속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laherty와 Richman(1993; 박은미, 1999 재인용)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연구한 바,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여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고 응답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높은 돌봄과 낮은 과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연구 결과를 통해 성인기 지지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능력은 아동기에 경험하는 부모의 애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2. 정서표현

1) 정서표현의 개념

William James가 ‘정서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이래 심리학자들은 정서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해왔다(정민영, 2013). 하지만 인류학적, 사회학적, 신경생리학적, 정신분석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정서를 다르게 정의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정서를 말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최근에는 혼용되어 사용되던 정서의 개념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정서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대한 생리적이거나 행동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복합적인 상태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라는 것이다(김경희, 1995). 따라서 정서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내적 감각과 외적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인식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인자, 1984).

또한 여러 인지 이론가들에 의해 정서가 개인의 정보의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알고 표현하는 것이 개인이 적응적으로 기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Greenberg & Safran, 1989; Salovey & Grewal, 2005). 이러한 정서는 유기체로 하여금 정서유발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을 준비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유기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Frijida, 1988), 개인의 적응적인 사회적 기능, 심리적 안녕과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King & Emmons, 1990)

초기의 연구자들은 정서표현성을 외적 표현여부의 단일차원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점차 다차원적인 증거가 제시되었다. Kring, Smith & Neale(1994)에 의하면, 정서표현성은 정서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표현의 내용도 정적요소나 부적요소에 상관없이 없으며, 표현양식 또한 얼굴표정, 음성표현, 제스처에 의한 표현 등 다양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개인이 경험하는 기본 정서의 종류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데, 고대 동양 철학에서는 기쁨, 노함, 슬픔, 두려움, 사랑을 경험한다고 생각했고, Frijda(1988)은 행복, 슬픔, 화, 두려움, 혐오, 놀람이 모든 문화에서 발견된다고 하였으며, Plutchik(1994)는 분노, 두려움, 혐오, 놀람, 기쁨, 슬픔, 수용, 기대감 등이 일차적 정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들은 표현성(expressiveness)을 유기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얼굴 표정과 몸짓을 통해 드러나는 정서적 반응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에 혼자 있을 때 정서적인 영화를 보면서 드러나는 얼굴 표정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연구들은 정서표현성을 얼굴 표정을 포함한 모든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동으로부터 판단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표현적이고 개방적이며, 억제적이지 않은 정도라고 보다 직접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Riggio & Freidman, 1982).

이러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정서표현성을 긍정적인 대인적 효과와 연결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현적인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더 받고, 눈에 잘 띄며, 다른 사람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Riggio & Freidman, 1982).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주는 것은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병인이 된다고 간주되어 왔고, 정서를 담아두기 보다는 표현하는 쪽이 건강에 이로우며, 정서표현성의 결여는 심리 신체적 불편과 연관된다는 입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 표현성에 관한 연구들(이주일, 민경환, 황석현, 한정원, 1997)에서도 정서표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건강, 사회적 지지등의 심리적 적응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정서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기질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안녕감이나 신체적 건강에 문제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정서표현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인들과의 관계는 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감정, 욕구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서에 대한 이해와 정서표현이 한 개인의 적응적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장정주, 김정모, 2008 재인용).

원만한 대인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즉,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의 핵심이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는 정서 처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심혜숙, 왕정희, 2001).

한정원(1996)의 연구에서는 정서 표현성을 긍정적인 대인적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험하는 정서의 강도와 정서 표현성이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그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서나 친밀감을 잘 표현하는 것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나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이나 신체적 건강과는 상관이 없지만, 정서적 지지를 얻는데는 유리하였다. 이는 정서표현 성향이 개인의 신체 혹은 심리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 즉 대인관계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3. 대인관계 유능성

1) 대인관계 유능성의 개념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Thorndike(1920)의 사회지능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사회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내적인 동기, 상태, 행동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다른 유형의 지능과 구별되는 것으로

로 규정하였다. Leary(1957)는 대인관계의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을 타인과의 명확하고 의식적이며 상징적인 것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사회적 유능성, 의사소통 유능성, 관계 유능성등으로 명명되어 왔으며(Allen & Brown, 1976; Burns & Farina, 1984; Hansson, Jones, & Caperter, 1984; Rubin, 1982), Spitzberg와 Cupach(1989)가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대인관계 유능성은 효과성과 적절성의 요소로 이루어져있다고 하였는데, 효과성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원하는 것을 얻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정서를 얻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성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규범, 규칙 등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재치 있고 예의바르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한나리, 2009).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1988)는 대인관계 유능성에는 관계형성 및 개시 능력, 권리나 불쾌함을 주장하는 능력, 개인적인 정보를 개방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능력,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의 5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관계 형성 및 개시 능력은 만남이나 모임을 제안하거나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으로, 확대된 대인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후의 성인기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기반이 되는 능력이다. 권리나 불쾌함을 주장하는 능력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적절하게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적인 정보를 개방하는 능력은 신뢰가 전제된 관계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을 신중하게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능력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이 어떤 영역으로 구성되는지를 알아본 연구(한나리, 2009)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영역은 타인에 대한 배려, 적절한 자기개발, 관계 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갈등관리의 5가지 영역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새롭게 나타난 영역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자기개발이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는 한국 대학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요인으로

적극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방이 원할 때 관심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상대방을 높게 평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상대방이라는 사람 전체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자기개방은 시기와 관계 그리고 내용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자신의 내면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의미 있는 타인과의 접촉을 통하여 타인과의 상호협력적 필요성을 습득하게 되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내면화하면서 점차 사회적 존재가 되어간다. 이렇듯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원치 않든 간에 타인과 더불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대인관계는 인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한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개인이 이루어야 할 심리적 및 사회적 과업이 있으며, 또한 과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주로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경험하게 되는 대인관계의 양상도 다양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이론에 기초하여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 발달과업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인생에 있어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관계의 양상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의하면 20세에서 40세까지의 이 시기는 개인이 친구나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는 단계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 타인과 가깝고, 따뜻하며, 친밀한 관계가 발달됨으로써 '사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므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어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된다. 따라서 Erikson은 이 시기를 친밀감 또는 고립감의 갈등 시기라고 하였다.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학생들은 점차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 가게 된다. 청소년시기에 학생들의 시간과 노력이 입시준비에 집중되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

그동안 억눌렸던 대인관계의 욕구가 증가하게 된다. 청소년시기의 제한된 대인관계와 달리 대학에서는 학과, 동아리, 동문회, 향우회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그러한 사람들과 활발한 교우관계를 이루어 간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는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도 현저한 변화가 일어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같은 반의 지정된 좌석에서 정해진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친구나 짝과 같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대인관계의 틀이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부모나 교사의 제약이 사라지고 학생 개인에게 많은 자유와 자율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틀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학생 개인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듯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대학 입학초기에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

대학교 시기의 대인관계는 질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 시기에는 친밀한 대인관계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선택의 기준도 변화한다. 즉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학교나 같은 반의 소속의식에 근거했던 교우관계에서 성격, 가치, 이념, 취미, 관심사, 졸업 후 진로 등 다양한 기준에 근거한 교우관계로 변화한다. 또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요인도 변화하고, 선택 대상의 증가로 인하여 대인관계의 형성과 와해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대학에서는 이성 관계에 대하여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기에 미팅, 소개팅 등을 통하여 이성과의 만남이 빈번해지며 이성교제가 활발해 진다. 깊이 있는 실질적인 이성관계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대학생 시기이다. 성인으로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이성 관계를 형성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성 관계를 통하여 강렬한 감정이 개입되는 새로운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되며 만남과 이별을 겪으면서 여러 이성을 탐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시기에 만난 이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권석만, 2005).

이상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대학생 시기는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친밀감 또는 고립감이 발달되는 시기로서, 다양한 삶의 가치와 방법에 대하여 탐색하면서 미래의 자기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여,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인생의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는 대인관계의 발달단계에서 전환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

4. 부모양육태도, 정서표현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대인관계는 개인이 가지는 여러 내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Lapsley, Edgerton, 2002). 즉, 대인관계에는 개인 내적 요인과 타인과의 관계적인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요인으로 정서표현을, 타인과의 관계요인으로서 부모양육태도를 주목하였다.

먼저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은미(1999)는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안정된 돌봄은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고 성인이 된 이후의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최서미(2000)는 부모 양육태도를 애정-자율-성취-사회성 지향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자신감 있고 수용적이며 허용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Baldwin(1984)은 민주적 가정분위기에서 자란 아동은 높은 사교성을 나타내고 정서적인 감정을 용이하게 표현하나, 부모의 태도가 과보호적일 때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집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주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방법은 자녀들의 협동성과 사회성을 보다 잘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우간에 있어서도 상호 친절해질 수 있고 독립적이고 자발성을 갖도록 하며, 이와 한 대로 부모의 엄격한 양육방법은 자녀들에게 적개심을 일으키게 하고 비 협동적이며 사회성에 결핍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Waston, 1961; 김현숙, 1993, 재인용).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로 미루어보아, 부모 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정서표현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에 의하면(심혜숙, 왕정희 2001, 이건성, 2009) 정서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대인간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였고, 개인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진희(2006)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개인의 일상적 적응과 사회적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정서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일수록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정서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는 중요 요인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부모양육태도가 정서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유아에게 안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면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게 된다고 설명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Cassidy, 1994; 박보은, 2007 재인용).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개인 내적 요인인 정서표현과 부모 관련 요인인 부모양육태도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모형 및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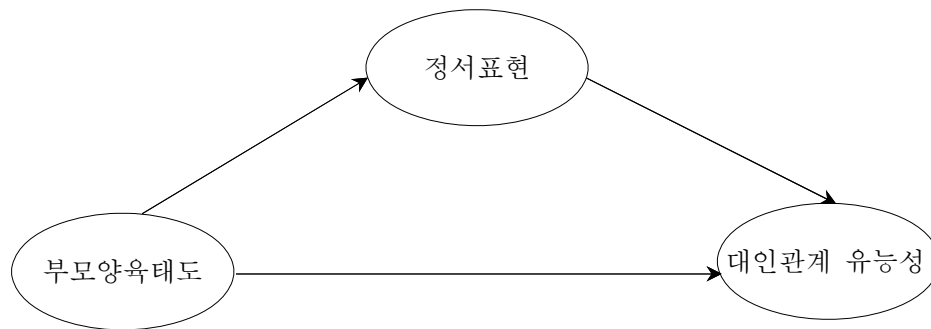
1. 연구모형

지금까지 부모양육태도와 정서표현이 대인관계 유능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선행변인인 부모양육태도와 정서표현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부모양육태도와 정서표현이나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성만을 단편적으로 탐색해왔으며,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관계에서 개인 특성인 정서표현을 매개적 역할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내적 요인인 정서표현을 매개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물게 찾아 볼 수 있다. 윤미영(2012)의 연구에서 부모의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을 잘 하게 되고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공감 수준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정서표현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혜신(2011)은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능력이 좋았으며,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 대인관계 능력도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여 정서표현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서표현이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

계 유능성을 연결 짓는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연구의 연구자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양육태도, 정서표현, 대인관계 유능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확인하고,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서표현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III-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위와 같은 연구모형에 나타난 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표현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1-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정서표현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1-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1-3. 정서표현을 잘 할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정서표현을 매개로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2014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영학과 50부, 회계학과 50부, 무역학과 50부, 경영정보학과 60부, 관광경영학과 90부를 배포하여 총 300부를 100% 회수하였으며, 응답에 누락이 많거나 척도 전체에 동일하게 응답하는 등 신뢰성이 의심되는 설문지를 우선 제외하였다. 가족형태가 한부모 이거나 조부모와 거주한 형태를 제외하고 양부모와 거주한 형태만 선택하여 최종 유효자료로 확정된 설문지는 228부였다.

각 학과 교수에게 연락을 취해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학과교수의 수업시간에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 연구목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는 학생들이 직접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한 학생과 교수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작은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대상자수	%
성별	남	108	47.4
	여	120	52.6
학년	1학년	36	15.8
	2학년	74	32.5
	3학년	81	35.5
	4학년	37	16.2
나이	18 ~ 20	90	44.0
	21 ~ 23	117	46.0
	24세이상	21	10.0
집의 경제 사정	매우 어렵다	2	0.9
	어려운 편이다	28	12.3
	보통이다	173	75.9
	잘 사는 편이다	24	10.5
	매우 잘 산다	1	0.4

제시된 <표 IV-1>과 같이 성별은 남(47.4%), 여(52.6)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연령은 20대 초반인 20 ~ 23세가 207명, 20대 중반이 21명이었다. 집안의 경제사정은 어려운 편이 30명(13.2%), 보통이다가 173명(75.9%), 잘 사는 편이 25명(10.9%)이었다.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대상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부모님의 양육을 받고 자란 일반적인 20대 남녀로 추정할 수 있다.

2. 측정도구

1) 부모양육태도 척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25개 항목으로 구성된 PBI(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arker, Tupling & Brown, 1979)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 도구는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태도를 회상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돌봄(care)과 과돌봄은 총 12개의 문항, 과보호는 총 13개 문항이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안 그랬다’ (1) ~ ‘아주 그랬다’ (4)에 응답하도록 만든 4점 Likert 척도이다. 부모 돌봄과 부모 과보호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한 총점을 구하여 부모 돌봄, 부모 과보호 점수를 산출하였다. 부모양육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를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PBI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돌봄(예; 나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셨다)와 과보호(예; 어른으로 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78점이며, 돌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돌봄이 높고 과보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과보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IV-2>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요인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돌봄	1,2,4,5,6,11,12,14, <u>16</u> ,17,18,24	12	.97
과보호	<u>3</u> ,7,8,9,10,13, <u>15</u> ,19,20, <u>21</u> , <u>22</u> ,23,25	13	.90

주. : 역채점 문항

2) 정서표현 척도

대학생의 정서 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정원(1997)이 번안한 Kring과 Smith 및 Neale(1994)의 정서 표현성 척도(Emotional Expressivity Scale, E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인 정서 표현성을 평가하는 단일 차원 척도로,

각 개인이 외적으로 자기 정서를 표현하는 경향성을 5점 척도로 답하게 되어있다. EES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본인이 지각하는 정서 표현의 정도(예; 나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와 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지각(예;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7점에서 10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장정주, 김정모, 2008)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였다.

<표 IV-3> 정서표현성 척도의 하위요인

정서표현성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본인이 지각하는 정서표현의 정도	1,3,6,7,8,9,10 11,12,13,15,16,17	13	.76
타인에 대한 평가지각	2,4,5,14	4	.72
전체		17	.73

주. — : 역채점 문항

3)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는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1988)의 대인관계유능성 질문지(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한나리와 이동귀(2010)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관계 형성 및 개시(예; 새로운 사람에게 함께 모이거나 무엇인가를 같이 하자고 요구하거나 제안한다), (2)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예; 친구에게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3)타인에 대한 배려(예; 친한 친구가 중요한 삶의 결정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처리하도록 돕는다), (4)갈등관리(예; 친한 친구와 싸울 때 화가 난 감정을 접을 수 있다), (5)적절한 자기 개방(예; 가까운 친구에게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자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 형성 및 개시'는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다가가는 것이고,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은 자신의 권리나 불쾌함을 주장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관심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 관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적절한자기 개방'은 신중하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5점 리커트 형식으로 1점은 "나는 이것을 잘 못한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불편하고, 5점은 "나는 이것을 매우 잘 한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편안하고 잘 다룰 수 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고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 1988)에서 ICQ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7에서 .87로 보고되고 있다.

<표 IV-4>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하위요인

대인관계 유능성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관계 형성 및 개시	1,5,9,12,17,19,23,28	8	.89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2,6,10,13,20,24,29	7	.83
타인에 대한 배려	3,15,21,22,25,26,30	7	.83
갈등 관리	4,8,16,18,27,31	6	.78
적절한 자기 개방	7,11,14	3	.54
전체		31	.78

3. 자료분석

이 연구의 연구자는 SPSS WIN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정서표현, 대인관계 유능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모형 검증에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ML)을 사용하기 위한 정상분포 가정의 충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이론변인을 측정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이 적절하게 이론변인을 측정하는지 알아보고자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

넷째, 이 연구의 이론적모형 적합도 분석은 χ^2 지수의 가설이 너무 엄격하여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합도 CFI, TLI(NNFI), RMSEA를 함께 사용하여 비교하였다(성태제, 2007; 홍세희, 2000). 이후 연구모형에서 유의한 경로의 효과를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비표준화 경로계수와 표준 오차로 계산되는 Sobel test의 Z공식에 의하면, Z값이 $p < .05$ 수준에서 ± 1.96 보다 클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V. 연구 결과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각 측정변인들의 특성 및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값을 <표 V-1>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돌봄의 평균이 3.15로 나타나 과보호의 평균인 1.83보다 높아 통제적이고 간섭적인 양육태도 보다는 공감적이고 친밀한 양육태도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감정표현에 대한 지각은 평균이 2.61, 타인에 대한 지각은 2.73으로 비교적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유능성의 평균은 2.85~3.56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적절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들은 대체로 자율적인 양육환경에서 자랐으며 적절한 자기표현을 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는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볼 수 있다.

각 관찰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왜도는 최소 -.55, 최고 .56으로 나타났다, 첨도는 최소 -.59, 최고 .4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왜도는 절대값 3을, 첨도는 8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기준에 부합함에 따라(권현실, 2013 재인용) 이 자료는 모형검증을 위한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르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표 V-1>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Variable	Min	Max	M	SD	Skew	Kurtosis
들뜸	1.17	4.00	3.15	.47	-.55	.44
과보호	1.00	3.42	1.83	.46	.56	.07
자기표현지각	1.15	4.23	2.61	.60	.13	-.37
타인표현지각	1.00	4.50	2.73	.65	.08	-.59
관계형성	1.13	5.00	3.24	.75	-.01	-.24
권리주장	1.43	5.00	3.09	.71	.23	-.12
타인배려	1.86	5.00	3.56	.61	.01	-.20
갈등관리	1.83	5.00	3.45	.64	.02	.06
자기개발	1.00	5.00	2.85	.76	.00	.02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라 연구 변인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표 V-2>에 제시한 것과 같이 성별, 학년, 집안경제 사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외의 다른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첫째,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본인이 지각하는 정서표현의 정도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평가지각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자는 남자에 비해 더 표현적이라는 연구결과 (Gross & John, 2003)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하나(2006)은 정서표현의 갈등이 남자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정서표현에 대해 억제와 규제를 많이 하고, 미묘한 정서표현 상황에서 모호한 감점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학년에 따라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요인인 관계형성과 권리, 불쾌주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관계형성 계수는 4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권리, 불쾌 주장도 4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를 갓 입학하여 아직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중인 1,2학년 보다는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고 대학생활에 익숙해진 3,4 학년 학생들이 보다 쉽게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권리나 불쾌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활동무대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길러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양한 집단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박주혜(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집안경제 사정에 따라서 부모의 돌봄과 어머니의 과보호가 유의미하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돌봄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과보호는 어머니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에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더 많은 통제적 개입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보다는 보통이거나 잘산다고 지각할 때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공감을 잘 받는 양육을 받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2>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구분		전체 (n=228)	성별			학년					경제사정			
			남	여	F	1	2	3	4	F	상	중	하	F
			(n=108)	(n=120)		(n=36)	(n=74)	(n=81)	(n=37)		(n=30)	(n=173)	(n=25)	
부모양육	M	3.27	3.28	3.26	.21	3.33	3.31	3.24	3.22	.60	3.19	3.32	3.08	3.7*
	SD	.47	.41	.51		.43	.43	.50	.53		.61	.42	.59	
부들부들	M	3.04	3.02	3.05	.19	3.10	3.02	3.02	3.02	.18	3.09	3.07	2.77	3.9*
	SD	.57	.57	.57		.50	.60	.59	.54		.60	.52	.74	
모과보호	M	1.85	1.87	1.84	.09	1.93	1.84	1.86	1.77	.71		1.81	1.98	2.9*
	SD	.50	.55	.47		.59	.49	.50	.48			.45	.56	
부과보호	M	1.81	1.80	1.82	.11	1.80	1.83	1.85	1.73	.54	1.91	1.78	1.92	1.75
	SD	.46	.49	.47		.46	.50	.48	.43		.56	.45	.48	
정서표현 자신표현	M	2.62	2.45	2.77	16.7*	2.57	2.60	2.66	2.60	.22	2.69	2.61	2.59	.24
	SD	.61	.55	.62		.58	.59	.57	.74		.75	.59	.55	
타인표현	M	2.73	2.59	2.85	9.2**	2.59	2.69	2.83	2.72	1.3	2.75	2.73	2.71	.03
	SD	.65	.62	.66		.67	.68	.56	.72		.66	.63	.77	
대인관계유능 관계형성	M	3.24	3.23	3.24	.01	3.07	3.09	3.31	3.57	4.3**	3.29	3.24	3.15	.27
	SD	.75	.79	.77		.69	.75	.75	.72		.83	.74	.73	
권리주장	M	3.09	3.09	3.10	.02	2.97	2.96	3.12	3.45	4.5**	3.19	3.08	3.07	.25
	SD	.71	.72	.71		.74	.62	.71	.78		.79	.71	.67	
타인배려	M	3.56	3.56	3.57	.06	3.54	3.57	3.49	3.73	1.3	3.44	3.57	3.57	.48
	SD	.61	.60	.62		.71	.53	.65	.58		.63	.60	.68	
갈등관리	M	3.45	3.52	3.38	2.78	3.42	3.49	3.37	3.57	.96	3.38	3.44	3.59	.91
	SD	.64	.64	.63		.64	.58	.72	.51		.67	.60	.81	
자기개방	M	2.86	2.87	2.85	.03	2.65	2.82	2.94	2.91	1.30	2.96	2.87	2.64	1.45
	SD	.76	.77	.76		.68	.71	.81	.78		.95	.70	.88	

2)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V-3>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 이론 변인을 구성하는 측정 변인내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돌봄과 과보호 간에 $r = -.55$ 의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대학생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할 때 친밀하고 자율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간섭하고 통제적인 태도를 적게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인관계 유능성은 5개의 측정 변인(관계형성, 권리주장, 타인배려, 갈등관리, 자기개발)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데 이들 간에도 모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r = .34 \sim .84$).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에게 잘 다가갈수록 자신의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을 잘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되며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면서 신중하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감적이고 친밀감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초기 관계형성을 잘 하게 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등에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별로 보면 돌봄 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경우 대인관계 유능성과 대체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r = .17 \sim .25$)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대인관계 유능성과 대체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 = -.14 \sim -.23$). 즉, 부모가 공감하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부모가 통제하고 독립적 행동을 저지하게 될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표현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7 \sim .32$). 예를 들어 대학생이 자신의 감정표현을 잘 한다고 생각할수록, 관계형성을 잘 하게 되고 자신의 권리주장을 잘 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도 높고 갈등관리도 적절히 하게 되며 자기개방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양육태도는 정서표현에 대체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 = -.13 \sim .21$). 즉, 대학생이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신을 더 잘 표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돌봄의 양육태

도를 보인 경우 정서표현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경우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자율적이고 온정적인 양육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게 되고 통제적이고 간접적인 양육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게 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해보면, 정서표현은 주요 변인들과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표현을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모형의 탐색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표 V-3> 측정변인간의 상관계수

	돌봄	과보호	양육태도	자신표현지각	타인표현지각	감정표현	관계형성	권리주장	타인배려	갈등관리	자기개방	대인관계유능성
(1)	1											
(2)	-.544**	1										
(3)	.880**	-.863**	1									
(4)	.212**	-.132*	.194**	1								
(5)	.209**	-.107	.168*	.649**	1							
(6)	.232**	-.131*	.199**	.901**	.915**	1						
(7)	.171**	-.159*	.183**	.270**	.244**	.282**	1					
(8)	.046	-.094	.068	.237**	.076	.169*	.548**	1				
(9)	.251**	-.230**	.259**	.292**	.228**	.285**	.574**	.552**	1			
(10)	.233**	-.224**	.248**	.163*	.153*	.174**	.426**	.341**	.637**	1		
(11)	.179**	-.141*	.176**	.326**	.284**	.335**	.495**	.454**	.475**	.412**	1	
(12)	.218**	-.215**	.234**	.324**	.243**	.310**	.836**	.778**	.838**	.703**	.66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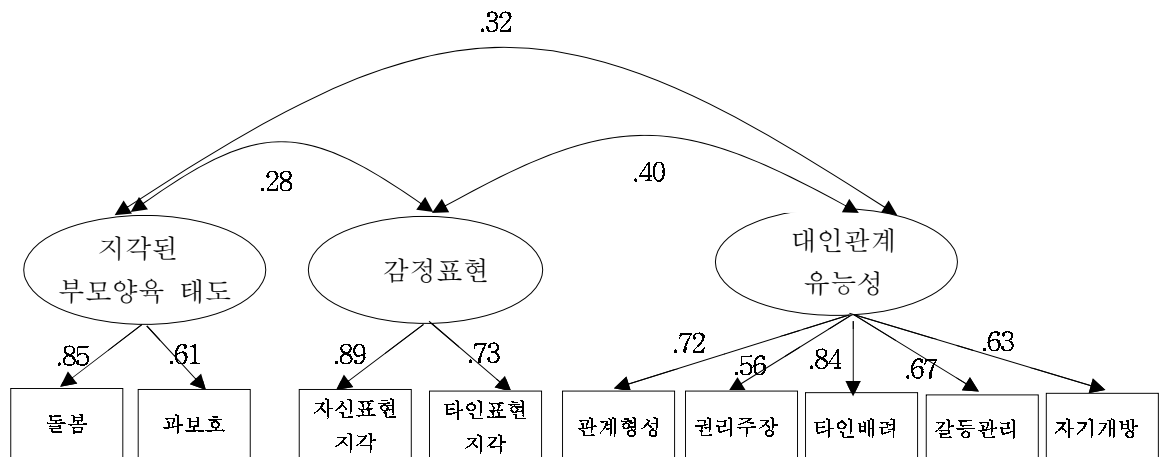
주. (1) 돌봄 (2) 과보호 (3) 부모양육태도 (4) 자신표현지각 (5) 타인표현지각 (6) 정서표현 (7) 관계형성 (8) 권리불쾌주장 (9) 타인배려 (10) 갈등관리 (11) 자기개방 (12) 대인관계 유능성

2. 부모양육태도, 정서표현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구조적 관계

1) 측정모형의 검증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표현,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개념들의 측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 간 상관을 가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V-4>에서 알 수 있듯이 적합도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chi^2=59.08(df=24, N=228)$, $p<.001$, $TLI=.92$, $CFI=.95$, $RMSEA=.08$).

하나의 잠재변인과 각각의 측정 변인들 간에는 높은 상관이 요구되며 요인부하량이 .5이상일 때 높은 유의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표 V-5>와 [그림 V-1]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연구의 측정모형에서는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85 ~ .61을 보였으며 감정표현 하위요인은 .89 ~ .73의 요인부하량을 대인관계 유능성 하위요인은 .84~.56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다($p<.001$). 따라서 9개의 측정변인으로 3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V-1] 측정모형 검증결과

<표 V-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CFA	59.08	24	.92	.95	.08

<표 V-5>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t)
부모양육태도	들봄	1.00	.86		
	과보호	.67	.61	.19	3.53***
정서표현	자신표현지각	1	.89		
	타인표현지각	.88	.73	.16	5.60***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형성	1	.72		
	권리주장	.87	.66	.10	8.95***
	타인배려	.10	.84	.09	10.93***
	갈등관리	.80	.67	.09	9.12***
	자기개방	.89	.63	.10	8.59***

주. N=228. ***p<.001

2) 연구모형 적합도 분석

이 연구의 연구자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서표현을 경유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한 적합도 지수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NNFI(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이다. CFI, TLI, GFI 지수들은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보며 RMSEA는 <.05 이하 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평가하며,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평가한다(홍세희, 2000). <표 V-6>에서 알 수 있듯이 RMSEA 값은 .08로 나타나 괜찮

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CFI와 TLI값 또한 참조 기준값 이상인 .95, .92로 나타나 이 연구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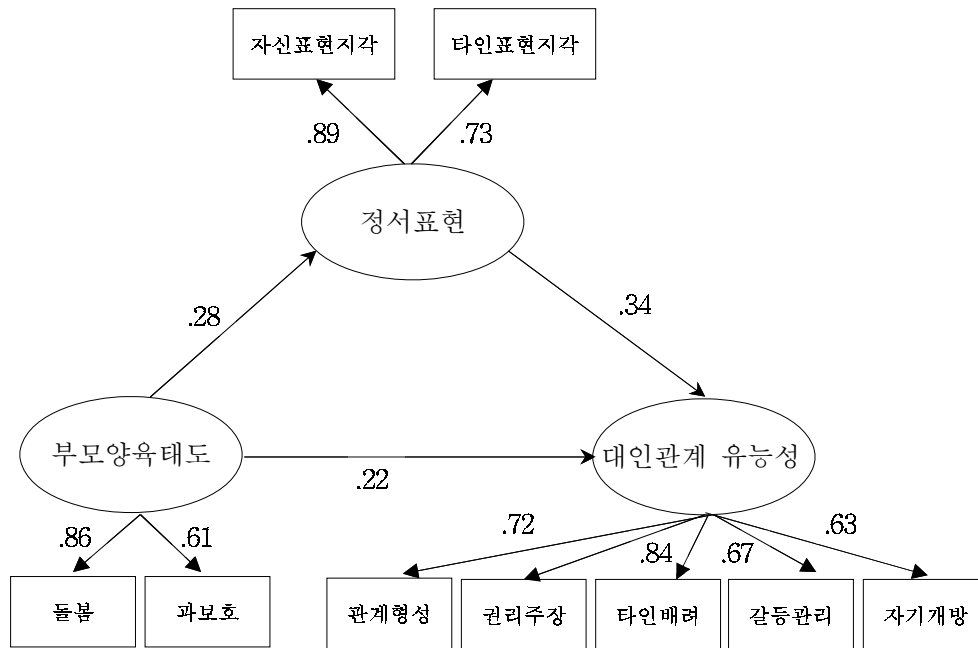
<표 V-6>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RMSEA	GFI	CFI	TLI
연구모형	59.03***	24	.08	.94	.95	.92

*** p<.001

3) 연구모형의 구조경로의 유효성 검증

부모양육태도와 정서표현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의 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표 V-7>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모수추정치는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의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가 정서표현($\beta=.28, p<.001$)과 대인관계 유능성($\beta=.22,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자율적이고 온정적일수록 대학생들은 정서표현을 잘 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적절한 자기개방등을 할 수 있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서표현을 잘 할수록 대인관계 유능성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4, p<.001$). 즉 정서를 적절히 표현 할수록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V-2]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표 V-7>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경로	B	β	S.E.	C.R.(t)
부모양육태도 -> 정서표현	.55	.28	.17	3.2***
부모양육태도 -> 대인관유능성	.30	.22	.08	3.5***
정서표현 -> 대인관계 유능성	.39	.34	.15	2.5***

주. N=228, *** p<.001

4)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

부모양육태도와 정서표현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로 이루어진 총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표 V-8>에 제시하였다.

부모양육태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2, p < .001$), 정서표현의 매개효과($\beta = .07, Z = 2.38, P < .05$)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을 받아 정서표현을 잘 하게 됨으로 써 대인관계를 적절히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모양육태도는 직·간접 경로를 통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의 변인의 20%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대인관계 유능성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총효과 분해

	인과적 효과(β)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양육태도	.22	.09	.31
정서표현	.34	--	.34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 1과 2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표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보여($\beta=.28, p<.00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정서표현을 더 잘할 것이라는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보임으로써($\beta=.22, p<.00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더불어 정서표현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beta=.34, p<.001$) 정서표현을 잘 할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3도 지지되었다.

둘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대학생이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정서표현을 통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매개효과는($Z=2.389, p<.05$)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VI. 논의 및 제언

1. 논의

대학생은 사회성 발달 단계상 친밀성을 형성하는 성인초기에 있다(신명희, 박명순, 권영심, 강소연, 2007). 따라서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인격발달을 위해서 친밀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방황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는 대학생들은 친구관계, 이성관계, 선후배관계, 가족관계 및 교수와의 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 문제가 그들에게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권석만, 1995). 대인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소외감은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시키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줄 사회적 지지를 단절시켜 우울증, 사회적 불안, 성격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야기하게 된다(이건성, 2009).

이에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현재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양육태도가 정서표현을 매개로 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수준에 따라 부모양육태도에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경제수준이 상·중일 때가 하일 때 보다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공감을 잘 받는 양육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수준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Kohn, 1979). 실제로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에 심리적 부담감을 더 심하게 느낄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지원 제공에 있어 뒤떨어지는 능력을 보인다(McLoyd, 1990).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경험들, 그리고 정신 신체적인 긴장과 공격성을 유발시킴으로써 그것이

체별적이고 위압적인 양육 태도 특징을 창출해 내기 때문에 저소득층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Berkowitz, 1989).

2) 부모양육태도, 정서표현 및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전에는 확인된 바가 없었던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표현과 대인관계 유능성간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정서표현을 통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정서표현을 더 잘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안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면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반면 어머니의 갈등, 체벌, 거부 등과 같은 통제적 양육태도는 정서표현력이 낮다고 본 연구나(박보은, 2007), 어머니의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와 정서표현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안현지, 199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정서표현과 대인관계 유능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서표현을 잘 할수록 대인관계 유능성도 증가하였다. 이는 정서표현을 통해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고 상대 역시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와(김은영, 2009),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타인 역시 화자가 정서개방을 꺼린다는 것을 느끼고 화자와 보다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겠다고 예상한 연구(Gross & John, 2003)를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3)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에서 정서표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정서표현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해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표현이라는 변인을 통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

이다. 정서표현은 인간관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감정, 욕구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기이해는 물론 적응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이 증진되고 그에 따른 대처노력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Kennedy-Moor & Watson, 1999).

부모의 양육이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돌봄의 형태도 자녀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자녀는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형성하기 쉽고, 정서표현은 다시 대인관계 유능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표현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을 매개하는 변인이라는 결과는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내적자원인 정서표현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입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부모의 양육은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돌봄으로 제공됨으로써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녀입장에서 부모의 양육을 과도한 보호로 지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공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과거 부모 양육이 현재 개인의 성격이나 정서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지라도 과거 양육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생활에 임하며, 변화를 발전의 계기로 삼고 도전하려는 태도라 하겠다.

정서표현은 부모나 가족 구성원의 1차 집단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형성될 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의 지원과 스스로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실제적인 문제 해결 등의 과정도 강인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도 스스로 극복하려는 시도나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지지를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인 내적 자원이 증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기 결과는 긍정적인 내적 자원은 부모의 돌봄이 높을수록 높은 반면에 부모의 과보호가 높을수록 낮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보살핌은 긍정적 자원 형성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통제나 간섭을 바탕으로 한 보호는 오히려 해로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의 과보호는 정서표현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부모의 보호가 지나치면 자녀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등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직접적인 부모 보호가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과도한 보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개인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부모역할에 대한 과도한 불안 등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독립적인 행동을 허락하지 않는다거나 지나친 간섭으로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은 안전한 울타리로서 보호의 의미가 왜곡된 것이다.

이처럼 정서표현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과도한 부모의 보호가 아닌 안정적인 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과거 부모 양육에 대해서만 관심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매개역할로서 정서표현이라는 내적자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사회적 지원과 격려의 제공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4) 부모양육태도의 직접 효과를 확인하였다.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인 부모의 자녀는 사회성이 발달되고 협동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나(유안진, 서봉연, 1982),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경우 사회적으로 위축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에 부합한다(송경섭, 1996). 또한 Mussen, Conger & Kanger(1974)의 제한적 혹은 허용적 양육방법에 따라 모든 아이들의 성격이나 행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인 양육보다는 허용적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의 자녀가 바람직한 특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한 연구와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방법은 자녀들의 사회성을 보다 잘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우간에 있어서도 상호 친절해 질 수 있고 독립적이고 자발성을 갖도록 하며, 이와 반대로 부모의 엄격한 양육방법은 자녀들에게 적개심을 일으키게 하고 비 협동적이며 사회성에 결핍을 초래한다고 보고한 최서미(2000)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행동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었다. 부모자녀관계에서 정서적인 지지와 애정은 자녀의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선의를 바탕으로 보호를 제공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 자율성을 침해하고 개입과 간섭이 지나친 것으로 지각된다면 부모의 의도에 관계없이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모 자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이 부모의 선의가 잘 전달되고 자녀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모의 지원으로 지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과보호는 부모 역할에 대한 불안정한 정서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즉, 부모 자신이 불안이 높고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서서히 독립해 가도록 격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이후까지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수록 자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기 어렵고 자율성과 독립심을 기르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장면에서는 부모의 선의가 제대로 반영되면서 부모들이 충분한 안정적 돌봄의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는 제공자로서 자신의 선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지각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요령 등에 관해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는 부모 스스로가 부모 역할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을 덜고 자신은 물론 자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쌓아가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서표현이 발달하는데 있어서 선행요인인 부모 돌봄과 부모 과보호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정서표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 양육태도는 과거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을 반영한 것으로서, 과거 부모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경험이라는 면에서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자녀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특성인 정서표현이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불안정 애착의 매개한다는 연구(박인혜, 2012)와 같이 매개변인의 부정적인 특성에서 찾았거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매개변인을 밝힌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을 확장하였다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부모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은 자녀의 성격 및 추후 대인관계 형성에 핵심이라는 점이 대상관계 이론이나 애착 이론 등을 통해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정서표현을 매개변인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연구를 없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즉, 대학생 자녀의 경우 부모 양육태도는 현재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정서표현을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한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표현은 다시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결과는 부모 교육에 있어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과 부모 양육태도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한편, 부모 양육태도가 현재 입장에서 지각된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정서표현은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 스스로 조정하고 변화 가능한 개인차 변인이다. 이를 상담현장에서 보면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불편감과 관련하여 심리적 적응을 돕는 접근 통로로서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만약 내담자가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라면, 지각된 과거에 초점을 두기보다 현재 내담자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

하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와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심리적인 자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긍정적인 자원을 찾고 변화를 위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내적 자원의 발견을 위해 최근에는 정서표현 강화를 위한 원예치료, 놀이치료, 무용치료, 문학치료 프로그램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서표현 프로그램 시행의 중요성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부모로부터 제공된 돌봄과 과보호를 다각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현재 자녀의 입장에서 지각에만 의존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스스로가 평가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가 기억하는 것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Parker & Lipscombe, 1981)나 사실의 정확도 자체보다 응답자가 그 사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양육태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상식 자기 보고 방식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면에서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의 지각에 따른 보고로 측정하는 것은 부모가 과도한 개입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애정과 돌봄으로 지각하는 경우와,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자녀 입장에서 지나친 보호로 여기는 경우 모두에서 왜곡이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각된 회상식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긍정적이라면 부모의 태도에 대한 지각도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갈등이 있고 소원한 관계라면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과 그러한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 각각의 양육태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또 다른 측면에

서 후속 연구의 제안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어머니가 주요 정서적 양육자로서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여겨졌다. 근래에는 이전 세대에 비해 아버지들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녀 입장에서 어머니의 양육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돌봄이나 과보호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주요 연구 과제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비해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실제적인 부모 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이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으로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들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집단이며 특별히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도움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는 부모나 주변 사람의 보호는 필수적이며 때로는 과도한 보호조치 당연하거나 매우 유용한 도움으로 지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돌봄과 과보호라는 차원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폭넓은 대상과 연령대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대인관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대인관계 측면은 물론, 신체적 자율성, 학업성취, 정서적인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박은미, 1999)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학업적 측면에 각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부모 양육태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후 포괄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재선, 김의철 (2006). 심리적 특성, 생활 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18.
- 권석만 (1995). 정서와 인지: 정서장애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동계 심리학 연구 세미나**, 49-95.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30(1), 38-63.
- 권석만 (2005).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진희 (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권현실 (2013).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에 결핍에 미치는 영향: 자기구조와 방어기제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김경희 (1995).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성경 (2002).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진로태도 성숙도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47-62.
- 김성희, 박경희 (2008). 대학생 대인관계 조화척도 개발. **상담학 연구**, 9(2), 375-389.
- 김은영 (2009).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김은정, 김진숙 (20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김인자 (1984).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종서, 잠정걸, 정지웅, 이종환 (1983).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82-87
- 김현숙 (199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과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박보은 (2008).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성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박은미 (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인혜 (2012).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가 불안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불안정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박주혜 (2011). **대학생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진단도구의 결과보고 및 활용방안 탐색**. 석사학위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한샘 (2004). **사회적 유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8, 55-83.
- 성태제 (2007).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 분석**. 서울: 학지사.
- 송경섭 (199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신명희, 박명순, 권영심, 강소연 공저 (2007). **교육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심혜숙, 왕정희 (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 해결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63-175.
- 안현지 (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안진, 서봉연 (1982). **인간발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주현 (2000).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윤미영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능력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윤혜신 (2010). **중학생의 희망, 공감, 정서표현, 대인관계의 구조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 이건성 (2009). **정서경험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능력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복영 (2008). 부모-자녀 간의 애착이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평가연구**, 1(1), 89-101.
- 이인숙 (2004). 2003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인간이해**, 25, 73-98.
- 이주일, 민경환, 황석현, 한정원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117-135.
- 이하나 (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의 표현 및 강등과 대인불안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장수정 (2005). 2004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인간이해**, 26, 175-203.
-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적 자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97-714.
- 정민영 (2013). **대학생의 정서표현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 정민현 (2008). 애착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인불안의 관계. **학생생활상담**, 26, 99-116.
- 정은임 (2004). **정서표현성과 대처양식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주석진 (2012). 인간관계론 교과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수준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7), 79-99.
- 최서미 (200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하 정 (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정서, 사고, 행동영역의 통합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나리 (2009).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갈등 상황에서의 인지 및 행동반응**.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한나리, 이동귀 (2010).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37-156.
- 한정원 (1997). **정서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경옥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2, 135-156.
- 황수민, 방희정, 신지은 (2010). 애착과 대인관계: 남자 대학생의 부모 애착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67-86.
- Allen, R. R., & Brown, K. L.(1976). *Developing communication competence in children*, Skokie, IL: National Textbook.
- Baldwin, A. L. (1984). Socialization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19, 127-136.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Hoffman, M L., & Hoffman, L. W(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1. NY: Russel sage fundation.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59-73.
- Bowlby, J. (1984). Violence in the family as a disorder of the attachment and caregiving system.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44, 9-27.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91-1008.
- Burns, G. L., & Farina, A. (1984). Social compete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 99-113.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Frijda, N. H. (1988). The law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3, 349-358.
- Greenberg, L. S., & Safran, J. D. (1989). Emotion in psycho 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44, 19-29.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Hansson, R. O., Jones, W. H., & Caperter, B. N. (1984). Relationships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265-284.
- Kennedy-Moore, E., & Watson, J. (1999). *Expressing Emotion*. NY: Guilford Press.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ohn, M. L. (1979). The effect of social class on Parental values and practices. In D. Reiss & H.A. Hoffm(Eds.), *The American family*, 45-68. NY: Plenum.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34-949.
- Lapsley, D. K., & Edgerton, J. (2002). Separation-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46*, 141-493.
- Leary, T. F.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2), 311-346.
- Mussen, P. H., Conger, J & Kagar, J. (197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disturbanc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 937-977.

- Parker, G., & Lipscombe, P. (1981). Influences on maternal overprotec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8*, 303-311.
- Parker, G., Barrett, B., & Hickie, I. (1992). From nature to network: Examining links between perception of parenting received in childhood and social bonds in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877-880.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ennebaker, J. W., Barger, S. D., & Trebout, J. (1989). Disclosure of traumas and health among Holocaust survivors. *Psychosomatic Medicine*, *51*, 577-589.
- Plutchik, R. (1982). A psychoevolutionary theory of emotion. *Social Science Information*, *21*, 529-553.
- Riggio, R. E., & Friedman, H. S. (1982). The inter-correlationships of self-monitoring factor, personality trait, and nonverbal social skill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7*, 33-45.
- Roberts, J. E., Kassel, J. D., & Gotlib, I. H. (1995). Level and stability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2), 217-224.
- Roe, A. & Siegelman, M. (1963). A parent-child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34*, 355-369.
- Rubin, R. B. (1982). Assessing speaking and listening competence at the college level: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assessment instrument. *Communication Education*, *31*, 19-32.
- Salovey, P., & Grewal, D. (2005). The sci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 281-285.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ethod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4*, 226-235.

- Sroufe, L., A. (1988). The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development. In J. Belsky and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 18-40). NJ: Erlbaum.
- Spitzberg, B. H., & Cupach, W. R. (1989).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W. Norton.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 Thorndike, R. L. (1920). Intelligence and its uses. *Harpers Monthly*, 140, 227-235.

Abstract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with College Students

Hyun, Ji Youn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 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Furthermore, this study tested if emotional expression would mediate the relation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to interpersonal competence. For this purpose, researcher addressed these questions.

- 1) Is there significantly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 2) Dose emotional expression have a mediated effect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Students' self-report measures were used for assessment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SPSS 18.0 was used for correlation analysis and t-test. Als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applied, using Amos 18.0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ly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Second, emotional expression had a mediated effect in relation of parent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 can differ depending on parental attitude. Also we identified that emotional expression were mediators in the proces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t's implication is future parents education should focus on parental care. In addition to, the desirable attitude of counselor in effective helping is enhancing emotional expression.

Key words: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Expression, Interpersonal Competence, Mediating Effect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대학생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 자신의 감정표현, 대인관계에 대해 평소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또한 좋은 답과 나쁜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문지에 있는 모든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여러분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애써 작성해주신 설문지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학문적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김민호

연구자: 제주대학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 현지윤

나이/성별	만 : 세	/	① 남 ()	② 여 ()
전공	학과			전공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군대	① 필() ②미필() ③면제()			

1. 귀하의 형제는 몇 명입니까?

①없음 ②1명 ③2명 ④3명 ⑤4명 이상

2. 귀하는 18세 이전까지 주로 어떤 형태의 가족에서 생활했나요?

①부모 + 자녀 ② 한 부모 + 자녀 ③ 조부모 + 부모+ 자녀
 ④조부모 + 한 부모+ 자녀 ⑤ 부모 없이 친척과 함께 ⑥ 보육시설 ⑦기타()

3. 귀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괄호 안에 각각 적어주세요

3-1) 아버지 () 3-2) 어머니 ()

①중학교 졸업 이하 ②고등학교 졸업 ③대학교 졸업 ④대학원 졸업이상

4. 귀하의 집의 경제 사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①매우 어렵다 ②어려운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잘 사는 편이다 ⑤매우 잘 산다

5. 귀하의 학과 내 성적은 어떠한가요? (1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답해주세요)

①상위권 ②보통이상 ③보통 ④보통 이하 ⑤부진

■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태도와 행동에 관한 것들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18세 이전까지의 부모님을 잘 설명하고 있는 해당란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어머니				아버지			
		매우 그렇 다	대체 로 그 렇다	거의 다르 다	전혀 다르 다	매우 그렇 다	대체 로 그 렇다	거의 다르 다	전혀 다르 다
1	나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씀 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내가 필요한 만큼 나를 도와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도록 해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나에게 냉정하게 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내 문제나 걱정거리를 이해해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나에게 애정이 있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하도록 해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내가 어른으로 커가는 것을 원치 않으 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제하려고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내 사생활을 침해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나와 함께 대화하시기를 좋아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나를 어린애 취급하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4	내가 뭘 원하며 필요로 하는지 모르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내 스스로 일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내가 원치 않는 아이였다고 느끼게 하 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내가 화났을 때 기분을 풀어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8	나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9	내가 부모님께 의존심을 갖게 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0	내가 부모님 없이는 내 자신을 돌볼 수 없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1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2	내가 원하는 만큼 외출하도록 허락하셨 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3	나를 과보호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4	나를 칭찬하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5	내 맘대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아래의 문항들은 정서표현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번호에 표시해주시시오.

	내용	전혀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자신이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사람들은 나를 무뎠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감정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종종 사람들은 나를 무심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감정을 사람들에게 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사람들 앞에서 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도 나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감정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강한 감정을 느끼더라도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감정을 숨지기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매우 감정적인 사람으로 본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사람들이 내 감정에 대해 추정하는 바와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감정을 억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 아래에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인관계 상황들이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 상황에 대해 자신이 그것을 얼마나 잘 다루고 편안한지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하십시오.

- ①= “나는 이것을 잘하지 못한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다룰 수가 없고 매우 불편하다, 나는 가능하면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
- ②= “나는 이것에 그저 그렇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다”
- ③= “나는 이것이 괜찮다; 나는 이런 상황을 다루는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고 약간 불편하다”
- ④= “나는 이것을 잘 한다; 나는 이런 상황을 다룰 수가 있고 꽤 편안하다”
- ⑤= “나는 이것을 매우 잘 한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매우 잘 다루고 매우 편안하다

	내용	잘 못한다	그저 그렇다	괜찮다	잘한다	매우 잘한다
1	새로운 사람에게 함께 모이거나 무엇인가를 같이하자고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친구에게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친한 친구가 중요한 삶의 결정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처리하도록 돕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친한 친구와 의견 불일치가 생겨 큰 싸움이 되려고 할 때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흥미를 느끼거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할 것을 찾거나 제안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데이트상대나 지인이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하도록 요청했을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7	새로운 친구나 데이트상대를 믿고 그가 당신의 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보도록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8	친한 친구와 싸울 때 화가 난 감정을 접을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9	당신이 알고 싶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	①	②	③	④	⑤
10	친구의 합리적이지 않은 요청을 거절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1	가까운 친구에게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자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2	사람들을 처음 알게 될 때 함께 하면 흥미롭고 유쾌한 사람이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3	친구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을 때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	①	②	③	④	⑤
14	새로운 친구에게 진짜 당신을 알도록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5	친한 친구가 가족이나 룸메이트와의 문제에 대처하도록 돕는 것	①	②	③	④	⑤
16	싸우면서 친구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그(녀)의 관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17	알고 싶은 사람에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8	큰 싸움이 될 수 있는 의견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는 말을 삼가는 것	①	②	③	④	⑤
19	새로운 데이트 상대나 새로 알게 된 사람에게 만나서 뭔가를 할 시간을 정하기 위해 전화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0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친구에게 맞서는 것	①	②	③	④	⑤
21	친한 친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녀)가 격려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22	전체를 비난("너는 언제나 그래")하지 않고 친구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3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첫 인상을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24	친구에게 그(녀)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5	친한 친구에게 당신이 얼마나 그(녀)를 높게 평가하고 신경 쓰는지 얘기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6	친구의 문제가 당신에게 흥미가 없을 지라도 진실된 공감적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27	친구에게 화가 났을 때 당신이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녀)가 타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28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당신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파티나 모임에 가는 것	①	②	③	④	⑤
29	데이트 상대나 지인에게 그(녀)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0	친한 친구가 도움과 격려가 필요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충고를 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31	해로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친한 친구에게(그것이 정당화되더라도) 폭발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⑤